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Weekly Strategy & Economy

시퀘스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2013. 3. 4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마주욱**  
02) 3787-5025  
majuok@kiwoom.com  
Economist/Strategist **전지원**  
02) 3787-5231  
jiwon@kiwoom.com

키움증권 

CREDIT 

## Contents



1. 주간 증시: 시퀘스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3
2. 국내외 주요 이슈: 정치적 요인과 펀더멘털	4
3. 주간 경제 전망: 'Sequester' 발동에 주목	5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상승	7
5. 수급동향: 외국인 수급여건 개선될 듯	9
6. Earnings & Valuation: 업종별 실적전망	10
7. 해외 증시 동향	11
Chart & Table	13

## 시퀘스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 &gt;&gt;&gt; 이번 주 국내 증시, 상승전망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추가적인 상승(2,000~2,060pt)이 예상. 미국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됐지만,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역시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또한 중국 전인대는 중국의 경기반등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

## &gt;&gt;&gt; 시퀘스터 발동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은 이어질 것이며, 3~4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 또한 S&P 및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시퀘스터 발동'에 대해 미국 경제가 이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시퀘스터의 영향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등급 조치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힘.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조정은 없을 것.

## &gt;&gt;&gt; 국내 증시의 상승모멘텀은?

3월 5일 중국 전인대가 시작. 이번 전인대에서 개혁과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언급이 있겠지만, 초점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맞춰질 것. 이는 중국의 경기반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요인이 한층 완화될 것. 이는 채권 및 외환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 1. 주간 증시: 시퀘스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

## >>> 국내증시 주간 전망

### 이번 주 국내 증시, 상승 전망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KOSPI)은 추가적인 상승(2,000~2,060pt)이 예상된다. 미국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됐지만,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역시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전인대는 중국의 경기반등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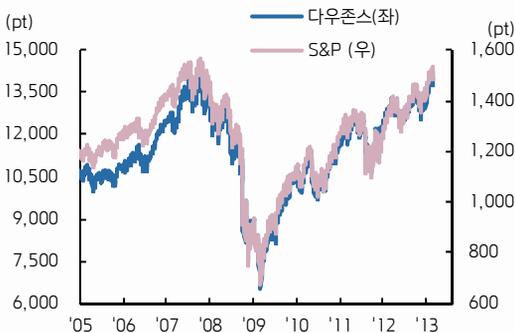
지난 3월 1일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sequester)이 발동됐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의 막판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13년 회계연도 지출을 순차적으로 85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 공무원의 무급휴가, 공공 서비스 축소 등이 예상되며, 시퀘스터가 연중 이어진다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0.5%pt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시퀘스터' 발동이 국내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은 이어질 것이며, 3~4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세출삭감과 세수증대 등을 담은 포괄적인 패키지로 시퀘스터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S&P 및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시퀘스터 발동'에 대해 미국 경제가 이를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시퀘스터의 영향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인 등급 조치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조정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했다. 경제의 펀더멘탈 개선이 주식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시퀘스터' 이행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임시예산안 종료(3월 27일), 예산결의안 마감(4월 15일), 부채 한도 일시 증액 종료(5월 18일) 등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대립은 향후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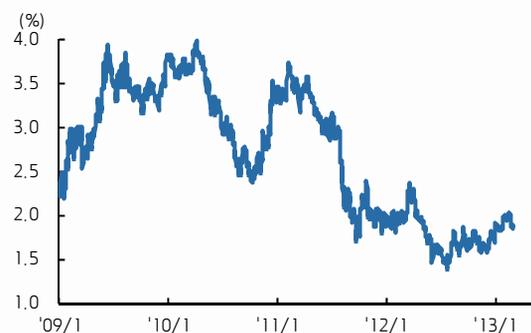
3월 5일 중국 전인대가 시작된다. 이번 전인대에서 개혁과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언급이 있겠지만, 초점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맞춰질 것이다. 이는 중국의 경기반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디커플링' 요인이 한층 완화될 것이다. 이는 채권 및 외환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우존스 vs S&P 500



자료: Datastream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 추이



자료: Datastream

## 2. 국내외 주요 이슈: 정치적 요인과 펀더멘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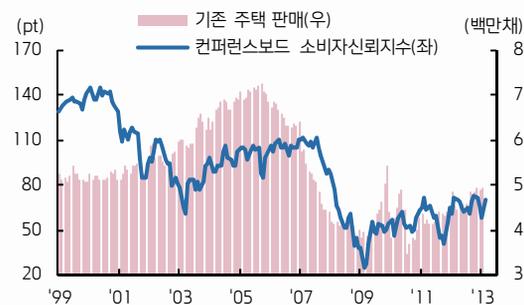
### >>> 정치적 불확실성 남아있지만, 견조한 펀더멘털 여건이 상승 모멘텀

이탈리아 총선 결과 및 시퀘스터 협상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현상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견조한 글로벌 경기 및 유동성 여건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부담을 극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69.6pt를 기록하며 지난 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대차대조표의 개선과 인플레이션의 안정에 따른 가치분 소득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주택경기의 회복이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현상은 추세적인 흐름으로 판단된다. 기존주택 판매에 선행하는 신규주택 판매는 지난 1월 전월대비 15.6% 상승한 연율기준 43만 7,000건을 기록했으며, 증가건수 기준으로도 199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또한 주택거래 데이터 중 가장 선행성이 강한 1월 잠정주택판매 지수는 전월대비 4.5% 증가한 105.9pt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9%를 크게상회하는 결과였으며, 2010년 4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또한 항공기 등 변동성이 큰 운송재를 제외한 미국 1월 내구재 주문이 1.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 이후 최대의 증가폭이며 시장 전망치였던 0.2% 상승과 전월 수정치 1.0% 상승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 해 4/4분기부터 재정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설비투자 움직임은 지연된 투자수요를 시사한다. 현재 78% 수준의 가동률이 80%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월 ISM 제조업지수의 개선은 설비가동률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월 ISM 제조업지수는 54.2%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최근 ISM 제조업지수는 3개월 연속 경기 판단의 기준선인 5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신규주문지수가 53.3%에서 57.8%로, 제품가격지수가 56.5%에서 61.5%로 상승하며 수요의 증가를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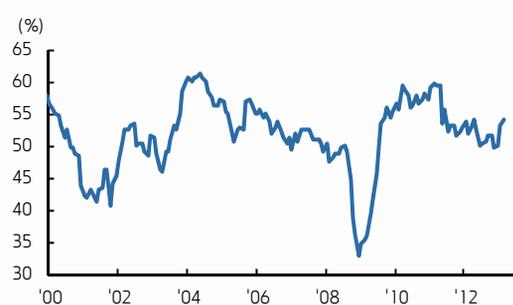
한편 출구전략에 따른 유동성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 지난 주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버냉키 Fed의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자산매입과 경기부양적 정책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양적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다면 경제 회복세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27일(현지시간) ECB는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출구전략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기 총재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금융권이 비상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ECB의 대차대조표는 축소될 것이지만 출구전략을 전혀 염두해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vs 기존 주택 판매



자료: Conference Board, NAR

ISM 제조업지수 추이



자료: ISM

### 3. 주간 경제 전망: 'Sequester' 발동에 주목

#### >>> 국내 경제

##### 2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1.6% 상승 예상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6%(전월비 0.5%)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파와 설 연휴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 영향으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미미했을 것이다. 2/4분기 중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것이나, 연간기준으로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 >>> 미국 경제

#####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영향에 주목

견실한 소비지출과 완만한 고용 및 주택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경기의 개선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다만, 3월 중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sequester)이 한시적으로나마 이행될 것이고, 이는 경기둔화 요인으로 판단된다. '시퀘스터'에 대한 협상이 길어질 경우 일시적인 경기둔화가 예상된다.

#### >>> 중국 경제

##### 설 연휴 이동에 따른 경기 지표 부진

2월 제조업 PMI는 50.1을 기록, 전월의 50.4를 밑돌았다. 1월 큰 폭으로 증가했던 수출입 역시 2월에는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춘절 연휴(2.9~15)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이르다.

####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3.4~3.8)

날짜	국가	경제지표	대상	중요도	전망치	이전치
3월 4일	한국	소비자물가(YoY)	2월	B	1.6%	1.5%
	유럽	생산자물가(YoY)	1월	C	NA	2.2%
3월 5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한국	외환보유액	2월	B	NA	\$328.91B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6일	유럽	소매판매(YoY)	1월	B	NA	-3.6%
		EU-27 재무장관회의				
	미국	공장주문	1월	C	-1.9%	1.8%
		MBA 모기지 신청지수(WoW,SA)	2월 4주	B	NA	-3.8%
3월 7일		Fed 베이지북 공개				
	유럽	GDP(YoY)	4Q P	B	NA	-0.9%
	미국	무역수지(SA)	1월	B	-\$43.0B	-\$38.5B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SA)	2월 4주	B	NA	NA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금리결정)	3월	B	0.75%	0.75%
3월 8일		스페인 국채입찰				
	미국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2월	A	150K	157K
		민간부분 고용자수 변동	2월	A	161K	166K
		실업률(SA)	2월	B	7.9%	7.9%
	중국	수출(YoY)	2월	B	NA	25.0%
		수입(YoY)	2월	B	NA	28.8%
	무역수지(SA)	2월	B	NA	\$29.1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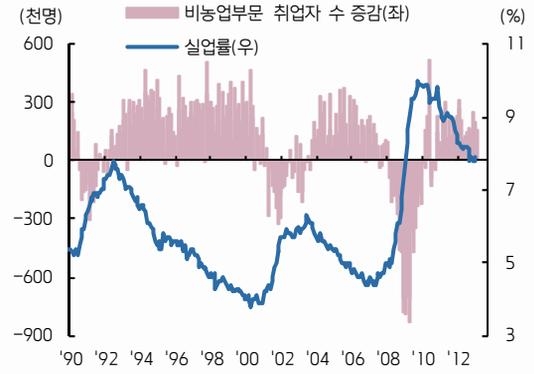
주 '중요도'는 경제지표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으로, A는 경제전망에 큰 도움이 되는 핵심 변수를 지칭.

###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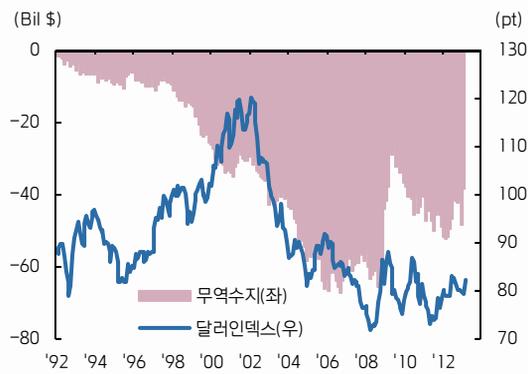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변동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 미국 무역수지 및 달러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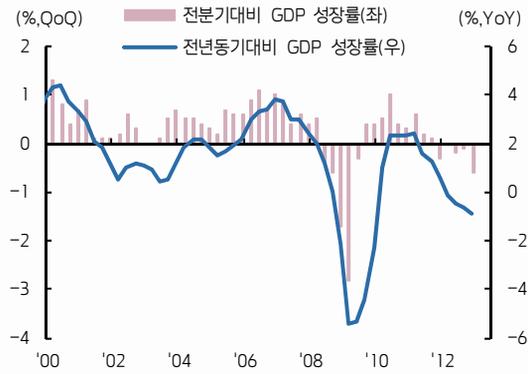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Datastream

### 미국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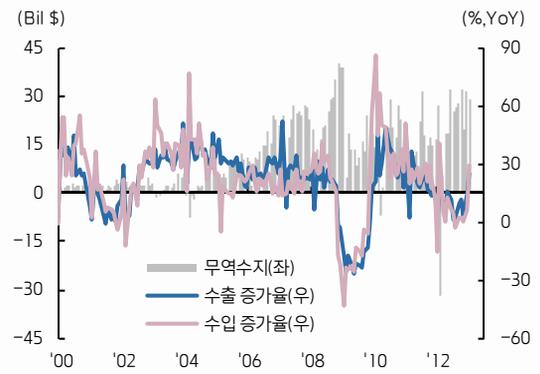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Labor

### 유로 GDP 성장률(전분기비 및 전년동분기비) 추이



자료: Eurostat

### 중국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자료: 중국 해관국

## 4.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 달러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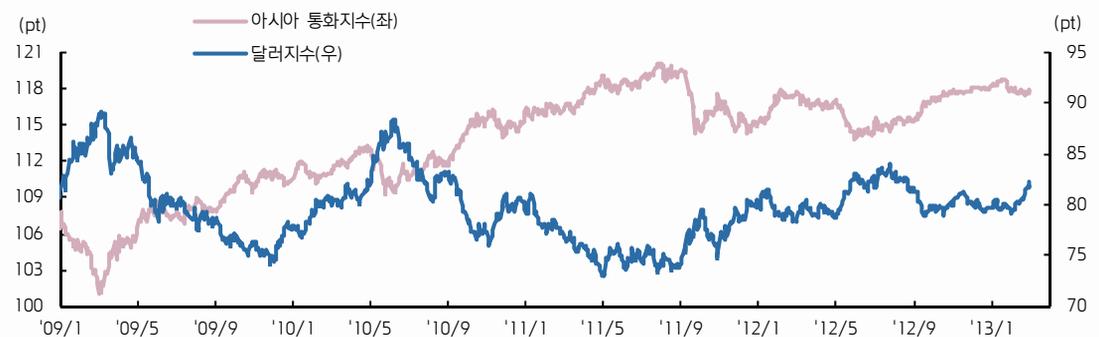
### >>> 지난 주 동향

#### 달러화,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지난주 달러지수는 전주대비 0.97% 상승 마감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 향후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존 경제지표가 부진했지만, 미국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이는 지난 주말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2월 유로존 PMI가 19개월 연속 50을 하회한 반면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 53.1에서 54.2로 상승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달러화 강세를 지지했다. 지난 주에도 엔화의 약세는 이어졌다.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안정 영향으로 일시적인 엔화 강세가 나타났지만, 새로운 일본은행 총재 관련 소식이 엔화 약세를 이끌었다. 현재로서는 '비둘기파' 색채가 강한 구로다 하루히코가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금융완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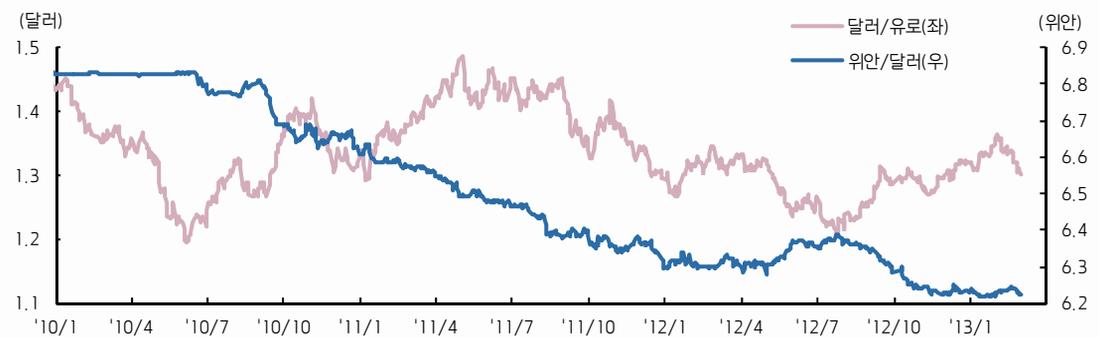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0.01% 하락한 1,084.56원에 마감됐다. 네고 물량과 미국경제지표 호조, 국내 주식시장 상승 등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시퀘스터 발동에 대한 경계 등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을 줄였다.

#### 아시아 통화지수 및 달러지수



자료: Datastream

#### 유로화 및 위안화



자료: Datastream

## >>> 이번 주 전망

### 원/달러 환율, 1,070~1,095원 중심 등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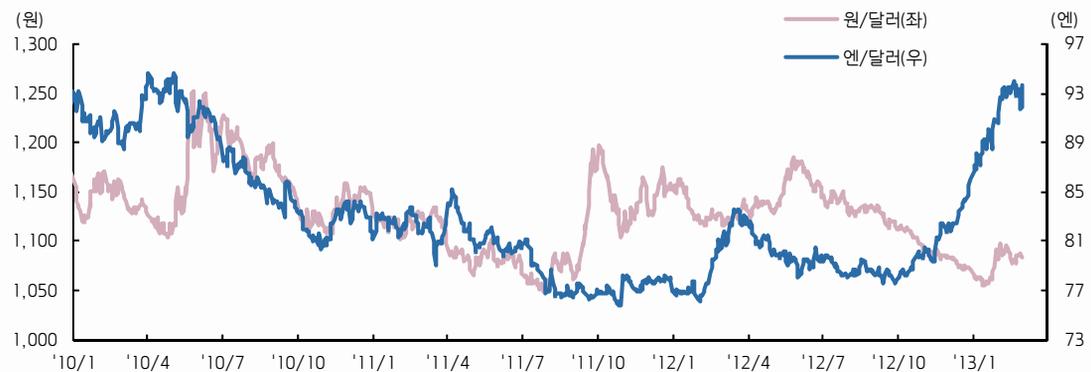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070~1,095원 중심의 등락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sequester) 이행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퀘스터가 단기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중국 전인대에서 도시화 가속화 의지가 나타날 경우 중국의 경기반등에 대한 기대가 외환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결국, 다음주 예정된 금통위에서의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원/달러 환율은 1,070~1,095원 중심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환율 변동률

	전주 말 3월 1일	1주 전 대비(%)	1월 말 대비(%)	2012년 말 대비(%)	2월 22일	1월 말	6개월 전	2012년 말
달러/유로	1.3022	-1.30	-4.14	-1.33	1.3194	1.3585	1.2579	1.3197
엔/유로	121.87	-1.10	-1.77	6.60	123.22	124.07	98.56	114.32
엔/달러	93.59	0.18	2.47	8.05	93.42	91.33	78.39	86.62
위안/달러	6.2230	-0.25	0.06	-0.12	6.2389	6.2190	6.3486	6.2306
<b>원/달러</b>	<b>1,084.56</b>	<b>-0.01</b>	<b>-0.37</b>	<b>1.89</b>	<b>1,084.68</b>	<b>1,088.59</b>	<b>1,134.63</b>	<b>1,064.40</b>
원/100엔	1,158.67	-0.21	-2.79	-5.71	1,161.07	1,191.94	1,447.47	1,228.82
대만 달러/달러	29.63	0.06	0.28	2.07	29.61	29.55	29.95	29.03
스위스 프랑/달러	0.9429	1.44	3.76	3.08	0.9295	0.9087	0.9549	0.9147
달러/호주 달러	1.0203	-1.13	-2.24	-1.73	1.0320	1.0437	1.0322	1.0383
<b>달러지수</b>	<b>82.28</b>	<b>0.97</b>	<b>3.87</b>	<b>3.14</b>	<b>81.48</b>	<b>79.21</b>	<b>81.21</b>	<b>79.77</b>

자료: Datastream

### 원/달러 환율 vs 엔/달러 환율



자료: Data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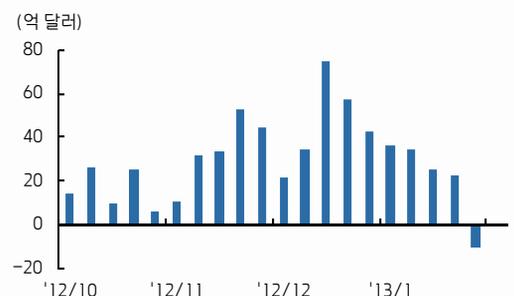
# 5. 수급동향: 외국인 수급여건 개선될 듯

## 미국의 해외 펀드 자금유입 강화와 엔화 약세 진정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는 25주만에 자금유출이 나타났다.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는 지난 주 10억 4천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GEM 펀드가 2억 달러 순증을 기록했지만, EMEA, 일본 제외 아시아 펀드, 라틴 펀드가 각각 2억 4천만 달러, 2억 달러, 8억 달러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3월 첫 거래일의 MSCI 지수 리밸런싱과 관련한 ETF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머징으로의 글로벌 자금유입 흐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뮤추얼 펀드 자금유출입 흐름을 살펴 볼 경우 해외 펀드로의 자금유입 흐름이 본토 주식형 펀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전인대 이후 SOC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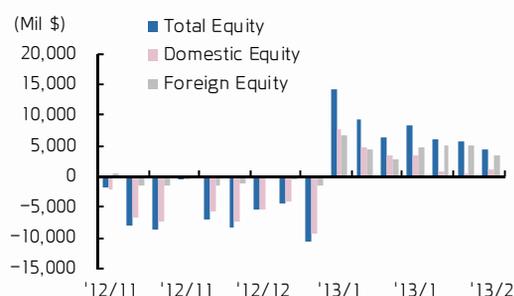
그동안 엔화 약세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상황은 위축되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엔화 약세가 진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주 버נק키 Fed의장이 BOJ의 디플레이션 탈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엔화 약세가 제한적이었음은 엔/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95엔 선의 저항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와 더불어 엔화가 구매력 기준으로 저평가 상황에 진입했다는 점, 원자력 가동중단에 따른 에너지 수입확대로 엔화 약세 시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다는 점과 계절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반기 결산에 따른 배당금 송금수요가 작용한다는 점은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제한할 것이다.

이머징 관련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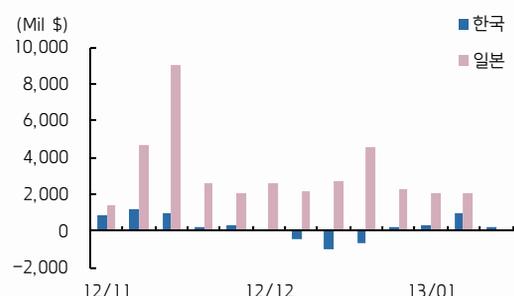
자료: Datstream

미국 뮤추얼 펀드 자금유출입 추이



자료: ICI

한국 vs 일본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Bloomberg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추이



자료: CFTC

## 6. Earnings & Valuation: 업종별 실적전망

### >>> 반도체, 유틸리티 및 금융업종 실적전망이 우선 개선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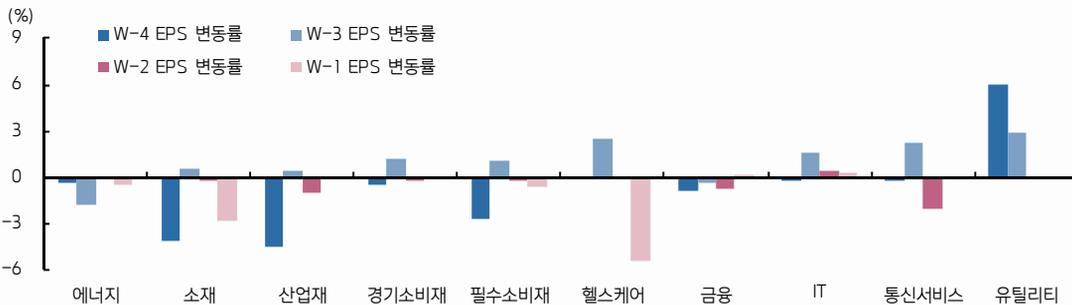
지난 해 4/4분기 어닝시즌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전반적인 실적발표 결과는 부진했지만, 낮아진 시장 눈높이와 향후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켰다. 현재 전반적인 기업실적 개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퀘스터 협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를 제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당분간은 글로벌 경기의 영향이 제한적인 업종에 실적개선 기대가 우선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부분의 Capex 감소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틸리티 업종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산업의 실적전망 개선이 예상된다.

#### 주요 지역 및 증시 EPS 추정치 변화율

구분	지역 및 국가	12개월 Forward 기준				2012년 실적전망 기준				2013년 실적전망 기준				PER
		1W	1M	3M	6M	1M	3M	6M	1M	3M	6M			
대륙	AC World	0.3	0.7	1.9	1.6	10.3	10.2	7.8	11.3	10.4	7.1	12.8		
	AC Asia-Pacific	0.2	-0.5	0.3	-1.8	17.2	13.9	5.6	10.1	7.9	3.2	12.8		
	AC Asia-Pac. Ex. JP	0.1	-0.7	1.3	2.2	9.3	9.0	7.9	10.0	10.0	7.7	12.3		
	AC Americas	1.0	1.9	2.6	2.9	9.8	9.9	8.8	12.6	11.4	8.6	13.4		
	AC Europe	-0.8	-0.6	1.9	2.2	6.4	8.0	7.9	9.6	10.6	7.8	11.5		
선진 시장	World	0.4	0.8	1.9	1.5	9.9	9.9	7.7	11.5	10.6	7.1	13.1		
	G7	0.5	0.9	1.8	1.3	9.7	9.6	7.5	11.5	10.3	6.9	13.0		
신흥 시장	Emerging Market	0.2	0.0	1.5	1.8	12.4	11.2	8.5	9.8	9.4	6.7	10.6		
	Emerging Market Asia	0.0	-1.0	1.2	4.0	13.1	12.0	11.7	10.5	10.3	9.7	11.0		
아시아 태평양 (8)	KOREA	-0.1	-0.8	0.5	2.6	17.2	12.7	11.2	11.5	9.6	7.7	8.6		
	JAPAN	0.9	5.4	12.6	7.5	-1.6	-1.9	-17.8	3.1	5.5	-0.1	13.8		
	CHINA	-0.2	0.5	2.0	1.6	9.6	8.8	6.7	11.1	10.9	7.7	9.9		
	INDIA	-0.2	0.6	1.9	3.2	14.2	13.1	10.2	14.1	13.0	11.0	14.0		
	TAIWAN	-0.3	-0.4	2.9	4.9	22.2	23.4	18.0	11.5	11.9	8.8	14.9		
	SINGAPORE	-0.5	0.3	0.3	-1.6	2.5	3.4	0.6	8.5	7.4	3.7	14.3		
	HONG KONG	0.2	1.6	2.8	5.5	11.2	11.6	9.5	11.1	10.4	10.6	15.6		
	AUSTRALIA	-0.1	1.2	1.8	-1.8	0.3	-0.3	-6.3	0.4	-0.7	-6.2	14.4		
아메리카 (4)	USA	1.3	2.2	2.8	3.3	9.3	9.5	9.1	13.0	11.8	9.2	13.5		
	CANADA	0.2	0.5	2.0	4.3	10.5	11.6	11.1	11.1	10.6	9.8	13.2		
	BRAZIL	-0.5	0.1	-4.7	-6.7	21.2	10.3	1.0	8.9	1.4	-3.7	10.5		
	MEXICO	-1.1	-1.1	0.1	3.2	11.0	12.0	13.0	10.0	8.6	7.6	17.8		
유럽 (5)	UK	0.5	0.8	1.3	-0.9	6.5	6.4	3.8	9.9	8.8	3.7	11.5		
	FRANCE	-0.5	-0.9	-0.7	-1.7	5.8	6.1	4.3	9.7	8.1	4.0	11.4		
	GERMANY	0.0	0.6	0.4	-0.9	-2.1	-2.2	4.3	12.2	10.7	5.5	11.1		
	ITALY	-0.8	-3.8	-4.3	-7.8	4.2	2.3	-2.2	10.3	7.5	0.3	9.9		
	RUSSIA	3.1	1.1	3.0	-0.3	2.4	2.1	-0.6	3.4	6.1	3.0	5.2		

자료: IBES

#### MSCI KOREA 업종별 12개월 Fwd EPS 변동률 추이



자료: IBES

## 7. 해외 증시 동향

### >>> 지난 주 다우지수, 0.64% 상승

#### Fed의 경기부양 의지 확인과 주요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

지난주 미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다. 한주간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퀘스터 우려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Fed의 경기부양 의지와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이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주 초반, 이탈리아 총선 결과와 관련해,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버냉키 Fed의장이 미국 상·하원에 출석해 양적완화 정책과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밝혀 투자심리 완화를 이끌었다. 유럽에서 드라기 ECB총재도 기존의 부양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출구전략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후반,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백악관에서 시퀘스터 방지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7개월간 850억 달러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제조업 및 소비지표가 개선세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여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2월 ISM 제조업지수는 시장예상치 52.5를 상회한 54.2를 기록해 1년 8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월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3.6% 감소했지만, 소비지출은 0.2% 증가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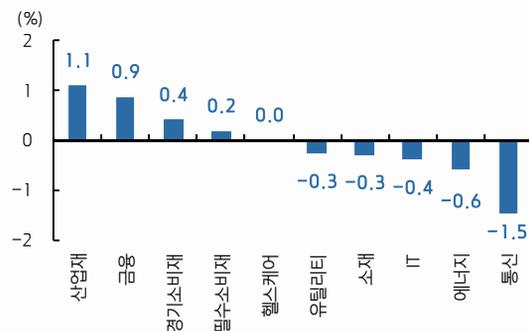
### >>> 지난 주 상하이 종합지수, 1.96% 상승

#### 정책전환 우려 완화로 지수는 상승 전환

지난주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증시 지원책 및 기타 경기부양 기조의 정책 출시 기대감과 최근 나타났던 부동산 및 금융정책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주 초반, 과도한 시중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세 지속 등으로 부동산 정책의 강도 강화 우려가 확대되었다. 이뿐 아니라 인민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정책전환 우려를 낳았다. 이는 부동산 업종과 은행 업종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주중 정책당국이 정책기조 유지를 강조해 이번 우려를 완화시켰고 3월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다. 또한 증권관리위원회(아래, 증감위)의 증시 지원책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증감위는 자산유동화증권 사업 개혁, 주택공적자금 증시 투자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월 PMI는 예상치(50.5)를 하회하는 50.1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경기판단선인 50를 상회하고 있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S&P 5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심호 300 업종별 주간 등락률



자료: Datastream



ONLINE NO.1 KIWOOM SECURITIES

이 페이지는 편집상 공백입니다



# Chart & Table

## >>> 증시 주요지표

### 거래소 시장

구분		2/22	2/25	2/26	2/27	2/28	
가격 지표	KOSPI	2,018.89	2,009.52	2,000.01	2,004.04	2,026.49	
	등락폭	+3.67	-9.37	-9.51	+4.03	+22.45	
	(시가)	2,007.34	2,022.51	1,993.12	2,008.94	2,019.05	
	(고가)	2,029.44	2,022.77	2,005.86	2,014.96	2,030.85	
	(저가)	2,006.59	2,008.78	1,991.96	1,999.65	2,016.15	
	대형주 지수	2,010.78	2,001.30	1,989.97	1,992.75	2,015.10	
	중형주 지수	2,110.81	2,102.59	2,102.58	2,112.60	2,138.47	
	소형주 지수	1,375.89	1,371.83	1,367.89	1,372.19	1,382.36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422 (3)	318 (1)	340 (4)	463 (1)	569 (6)
		하락 (하한가)	377 (3)	480 (2)	480 (2)	345 (1)	235 (0)
	이동평균	(5일)	2,005.30	2,010.82	2,013.66	2,009.54	2,011.79
		(20일)	1,967.30	1,970.44	1,973.45	1,975.86	1,978.96
		(60일)	1,973.58	1,975.26	1,976.51	1,978.03	1,979.56
		(120일)	1,954.40	1,955.25	1,956.05	1,956.81	1,957.80
	이격도	(5일)	100.68	99.94	99.32	99.73	100.73
	(20일)	102.62	101.98	101.35	101.43	102.40	
투자심리	(%)	80	70	70	70	7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69,070	1,163,376	1,157,790	1,160,021	1,173,044
	거래량	(천주)	409,122	338,228	433,409	417,073	421,957
		이동평균 (5일)	394,599	378,106	395,935	397,803	403,958
		이동평균 (20일)	391,325	388,145	392,342	389,945	384,880
	거래대금	(십억원)	4,051	3,171	3,595	3,530	4,196
매매 주체별 순매수		이동평균 (5일)	3,733	3,792	3,948	3,674	3,709
		이동평균 (20일)	3,922	3,828	3,775	3,716	3,707
	개인	(억원)	-1,969	720	1,352	-502	-4,594
	외국인	(억원)	257	377	-382	-179	2,042
	기관	(억원)	1,880	-989	233	635	2,828
일반법인	(억원)	-167	-123	-1,221	49	-254	
프로그램매매	(억원)	3,943	-344	-181	1,016	5,964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코스닥 시장

구분		2/22	2/25	2/26	2/27	2/28	
가격 지표	KOSDAQ	528.36	527.27	528.56	533.36	535.87	
	등락폭	+3.92	-1.09	+1.29	+4.80	+2.51	
	(시가)	525.85	531.30	525.59	531.98	536.25	
	(고가)	529.81	531.40	529.26	533.43	536.53	
	(저가)	525.77	527.26	525.43	530.86	534.59	
	등락종목	상승 (상한가)	523 (8)	432 (9)	379 (9)	539 (8)	552 (8)
		하락 (하한가)	396 (1)	488 (3)	546 (2)	367 (0)	361 (0)
	이동평균	(5일)	523.90	525.65	526.86	528.40	530.68
		(20일)	509.66	510.68	511.90	513.30	514.96
		(60일)	502.37	502.88	503.47	504.11	504.77
		(120일)	509.49	509.67	509.84	510.02	510.25
	이격도	(5일)	100.85	100.31	100.32	100.94	100.98
		(20일)	103.67	103.25	103.25	103.91	104.06
	투자심리	(%)	80	70	80	80	80
	거래량 지표	시가총액	(십억원)	117,120	116,884	117,169	118,209
거래량		(천주)	513,979	455,465	435,553	463,933	407,868
		이동평균 (5일)	492,760	488,388	479,418	475,987	455,360
		이동평균 (20일)	461,880	457,096	455,291	450,145	447,128
거래대금		(십억원)	2,219	2,101	1,945	2,138	2,129
매매 주체별 순매수		이동평균 (5일)	2,154	2,193	2,140	2,128	2,107
		이동평균 (20일)	1,776	1,788	1,809	1,833	1,850
	개인	(억원)	-375	-107	-470	-611	-635
	외국인	(억원)	468	79	228	216	164
	기관	(억원)	-31	155	555	420	493
일반법인	(억원)	-41	-111	-323	-23	-16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 증시 자금동향

### 역내 펀드 자금유출입

	12년 말	주간증감	2/22	2/25	2/26	2/27
고객예탁금	180,143		178,895	176,290	185,242	179,936
(증감)		<b>+3,772</b>	<b>+2,731</b>	<b>-2,605</b>	<b>+8,953</b>	<b>-5,307</b>
신용융자 (거래소)	22,029		22,557	22,573	22,534	22,527
(증감)		<b>-246</b>	<b>-216</b>	<b>+16</b>	<b>-38</b>	<b>-7</b>
신용융자 (코스닥)	17,095		18,133	18,231	18,360	18,435
(증감)		<b>+439</b>	<b>+136</b>	<b>+99</b>	<b>+128</b>	<b>+76</b>
미수금	1,241		1,403	1,513	1,643	1,417
(증감)		<b>+27</b>	<b>+14</b>	<b>+110</b>	<b>+130</b>	<b>-226</b>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737,330		731,339	729,697	729,437	729,428
(증감)		<b>-4,552</b>	<b>-2,640</b>	<b>-1,642</b>	<b>-260</b>	<b>-9</b>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Index펀드 포함)	654,863		644,549	643,140	642,995	643,080
(증감)		<b>-4,014</b>	<b>-2,545</b>	<b>-1,410</b>	<b>-145</b>	<b>+85</b>
국내 공모 주식형 수익증권(Active)	496,600		481,092	479,865	479,294	479,252
(증감)		<b>-3,331</b>	<b>-1,491</b>	<b>-1,227</b>	<b>-571</b>	<b>-42</b>
국내 사모 주식형 수익증권	82,467		86,790	86,557	86,442	86,348
(증감)		<b>-537</b>	<b>-95</b>	<b>-233</b>	<b>-115</b>	<b>-94</b>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283,050		276,427	276,252	276,358	276,278
(증감)		<b>-409</b>	<b>-260</b>	<b>-175</b>	<b>+106</b>	<b>-80</b>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100,435		97,489	97,172	97,823	97,756
(증감)		<b>+49</b>	<b>-218</b>	<b>-317</b>	<b>+651</b>	<b>-67</b>
해외 주식혼합형 수익증권	26,233		26,221	26,238	26,273	26,308
(증감)		<b>+125</b>	<b>+38</b>	<b>+17</b>	<b>+35</b>	<b>+35</b>
채권혼합형 수익증권	192,042		195,840	196,349	196,563	195,913
(증감)		<b>-202</b>	<b>-275</b>	<b>+509</b>	<b>+214</b>	<b>-650</b>
채권형 수익증권	468,680		483,920	483,009	483,592	484,380
(증감)		<b>+561</b>	<b>+101</b>	<b>-911</b>	<b>+583</b>	<b>+788</b>
MMF	636,706		801,306	803,281	793,175	788,417
(증감)		<b>-17,692</b>	<b>-4,803</b>	<b>+1,975</b>	<b>-10,106</b>	<b>-4,758</b>

자료: 자산운용협회, 제로인, 키움증권

## >>> 외국인/기관 주간 순매수/순매도 상위 종목

### 외국인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삼성전자	1,056	POSCO	583
2	한화생명	574	기아차	224
3	NHN	355	현대차	212
4	KB금융	275	SK하이닉스	204
5	LG전자	247	현대중공업	197
6	현대모비스	228	대우조선해양	165
7	KT	219	롯데케미칼	163
8	CJ	216	삼성테크윈	143
9	신한지주	206	엔씨소프트	125
10	S-Oil	189	삼성SDI	110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기관 (KOSPI)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SK하이닉스	707	LG화학	585
2	삼성테크윈	683	롯데케미칼	542
3	기아차	617	NHN	310
4	삼성전자	446	금호석유	237
5	한화생명	392	효성	209
6	LG전자	355	현대중공업	169
7	현대차	318	CJ	160
8	SK이노베이션	246	현대건설	155
9	엔씨소프트	196	삼성SDI	145
10	삼성전기	195	현대글로비스	130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외국인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셀트리온	192	다음	140
2	GS홈쇼핑	139	코오롱생명과학	47
3	이엘케이	65	성우하이텍	46
4	덕산하이메탈	65	동서	29
5	컴투스	62	실리콘웍스	27
6	메디톡스	45	한스바이오메드	27
7	다날	43	인프라웨어	24
8	CJ&M	34	농우바이오	20
9	파트론	33	KH바텍	15
10	솔브레인	27	YG엔터테인먼트	15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기관 (KOSDAQ) (단위: 억원)

순위	순매수		순매도	
	종목명	거래대금	종목명	거래대금
1	메디포스트	153	GS홈쇼핑	123
2	에스엠	137	파트론	95
3	성우하이텍	131	덕산하이메탈	87
4	YG엔터테인먼트	127	포스코엔텍	83
5	동서	103	SK브로드밴드	47
6	게임빌	96	알에프텍	27
7	CJ&M	95	솔브레인	24
8	코오롱생명과학	86	서울반도체	23
9	차바이오텍	80	유원컴텍	22
10	이엘케이	80	오스템임플란트	20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 Technical Approach

전고점 돌파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일양약품	32,400	제넥신	20,850
송원산업	13,050	에버다임	7,430
종근당	49,300	제이콘텐트리	4,470
대웅제약	55,500	미디어플렉스	2,050
CJ	149,500	이스트소프트	29,550
제일기획	24,000	아모텍	16,950
한솔테크닉스	21,600	비아트론	17,650
삼성테크윈	65,200	메디톡스	106,200
빙그레	136,500	KH바텍	17,900
현대모비스	313,000	차바이오엔	10,850

주: 전일 종가가 3개월 이내 최고종가인 종목 중 주가등락율 상위 종목

이격 확대종목 (단위: %)

KOSPI	이격도	KOSDAQ	이격도
동양	84	EMLSI	83
효성	92	아미노로직스	84
대한유화	93	디아이디	90
금호석유	93	온세텔레콤	91
현대상선	93	미래나노텍	91
코오롱인더	93	JW중외신약	91
현대엘리베이	95	차이나그레이트	93
롯데케미칼	96	레드로버	94
STX팬오션	96	다음	94
삼광유리	97	동양시멘트	94

주: 20일 이격도 기준 이격확대(이격도 98% 이하) 상위 종목

Stochastic Slow 신호 발생종목 (단위: %)

KOSPI	Slow %K	KOSDAQ	Slow %K
세아제강	27	로만손	31
KT&G	24	영풍정밀	27
KT	21	티케이케미칼	22
		JYP Ent.	21
		다날	21
		SK브로드밴드	20
		온세텔레콤	20

주: Slow %K가 20% 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

외국인 지분율 확대종목 (단위: %)

KOSPI	외국인 지분율	KOSDAQ	외국인 지분율
없음		GS홈쇼핑	33.40
		파트론	29.09
		아이센스	16.52
		덕산하이메탈	14.58
		에스텍파마	10.33
		슈프리마	8.35
		다날	8.10

주: 20 거래일 대비 외국인 지분율 3% 이상 확대 종목

상한가 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없음		이노셀	4,190
		오성엘에스티	3,980

주: 최근 10일 중 첫 상한가 기록 종목

단기 골든크로스 발생종목 (단위: 원)

KOSPI	전일 종가	KOSDAQ	전일 종가
근화제약	24,050	이노셀	4,190
조비	13,000	화일약품	9,870
현대그린푸드	17,450	미디어플렉스	2,050
SK케미칼	57,300	MDS테크	15,600
SG총남방직	1,400	CJ프레시웨이	34,150
한국개발금융	24,900	큐렉소	5,690
대웅	24,800	SK컴즈	7,190
SIMPAC	6,480		
AJ렌터카	10,300		
LS산전	66,800		

주: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종목 중 주가등락율 상위 종목

거래 급증종목 (단위: %)

KOSPI	거래증가률	KOSDAQ	거래증가률
일양약품	521.92	제넥신	465.30
파미셀	359.88	제이콘텐트리	456.85
LG하우시스	314.98	iMBC	453.00
한솔제지	311.74	이노셀	391.88
대웅제약	299.78	메디포스트	389.09
SK케미칼	284.83	로만손	366.25
오뚜기	272.29	예림당	344.13
웅진에너지	251.87	에스텍파마	340.32
강원랜드	249.04	에스엠	340.27
송원산업	204.77	화일약품	298.46

주: 전일 3% 이상 주가 상승 종목 중 20일 평균대비 50% 이상 거래증가 종목

기관 매수세 유입 종목 (단위: %)

KOSPI	주가 등락율	KOSDAQ	주가 등락율
일양약품	9.09	에버다임	6.45
한솔테크닉스	3.60	아이센스	5.61
베이직하우스	3.60	메디포스트	5.20
LG하우시스	3.51	신텍	4.61
한성	3.04	KG이니시스	4.43
넥센타이어	2.98	세코닉스	4.02
한라공조	2.89	메디톡스	3.61
한화케미칼	2.84	KH바텍	3.47
두산엔진	2.83	지디	2.92
부광약품	2.80	이라이콤	2.85

주: 최근 10일 중 7일 이상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 중 등락율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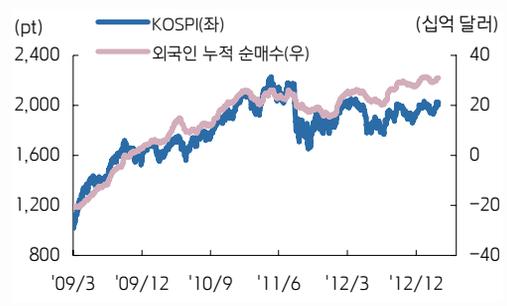
## >>> 아시아 증시 외국인 및 Global Fund Flow 동향

외국인, 지난 주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매수 우위 (단위: Mil \$, %, pt)

	대표지수 동향			외국인 순매수 금액			
	3월 1일	등락률	2월 22일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누적
한국	2,026.49	1.1	64.7	299.1	1,708.7	3,420.6	4,711.5
대만	7,964.63	0.0	-50.6	-56.2	1,356.5	3,953.2	6,012.7
인도	18,918.52	-1.5	39.0	23.0	4,337.8	12,988.9	20,471.3
태국	1,539.60	-0.1	-194.4	-48.9	-417.0	903.4	503.3
필리핀	6,642.27	-1.2	-0.9	-21.6	151.7	1,201.5	1,220.1
인도네시아	4,811.61	0.3		585.2	1,306.3	2,037.3	2,828.5
일본	11,606.38	0.4	-	2,038.1	10,972.7	40,557.8	46,3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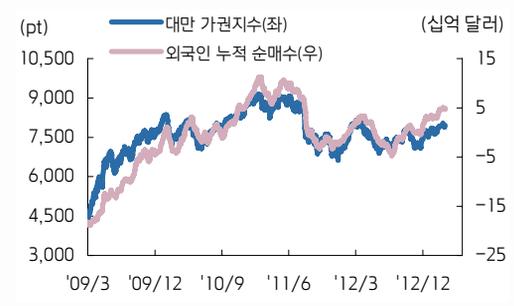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키움증권 주: 외국인 순매수 금액 일본 1주 지연 데이터, 한국 휴장으로 1일 지연 데이터

### 한국 증시(KOSPI)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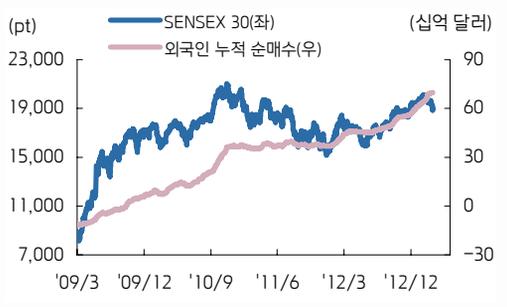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대만 증시(TWSE)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인도 증시(SENSEX)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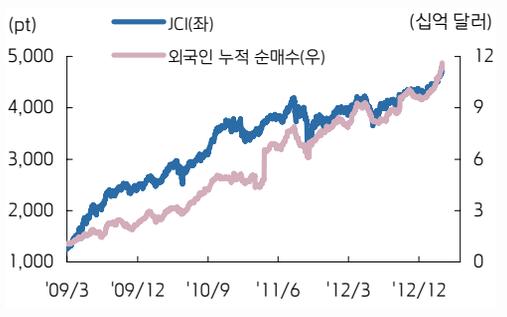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태국 증시(SET) vs 외국인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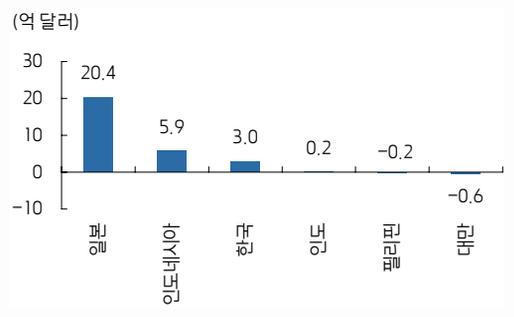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인도네시아(JCI) vs 외국인 순매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지난주 아시아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 MSCI 주요 지역별 실적전망 변화

세계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IT, 통신서비스, 경기소비재, 에너지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b>전체</b>	<b>0.3</b>	<b>0.7</b>	<b>1.9</b>	<b>1.6</b>	<b>10.3</b>	<b>10.2</b>	<b>7.8</b>	<b>-10.0</b>	<b>-5.5</b>	<b>-13.8</b>	<b>-13.7</b>	<b>12.8</b>
에너지	0.7	-0.5	0.4	0.2	3.9	4.0	3.8	-38.4	-31.6	-23.6	-10.9	10.4
소재	0.3	0.6	1.1	-5.2	18.5	16.2	4.3	-32.8	-16.2	-26.8	-36.3	12.5
산업재	0.7	1.0	0.6	-1.9	11.1	8.7	4.0	-5.9	1.4	-26.6	-19.2	13.6
경기소비재	0.8	1.8	4.0	4.0	16.9	16.3	12.7	2.9	2.3	-9.8	-9.7	13.9
필수소비재	-0.3	0.3	2.2	4.1	9.0	9.5	8.8	-13.0	-3.1	-6.9	-3.7	16.5
의료	0.0	0.0	0.6	2.0	2.1	5.3	5.8	0.7	-10.9	-1.5	-2.3	14.0
금융	0.2	0.9	2.7	4.2	12.4	11.8	10.2	5.0	-1.4	-3.2	-9.1	11.5
IT	1.1	2.3	2.7	1.2	12.2	12.1	9.9	-7.7	-1.4	-7.4	-15.1	12.6
통신서비스	1.0	4.2	15.1	35.6	3.2	11.2	25.2	-43.7	-8.0	-20.9	-28.7	12.4
유틸리티	0.0	0.5	5.3	4.6	7.8	13.2	11.8	-17.2	-6.0	-17.8	3.7	14.1

한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의료, 소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b>전체</b>	<b>-0.1</b>	<b>-0.8</b>	<b>0.5</b>	<b>2.6</b>	<b>17.2</b>	<b>12.7</b>	<b>11.2</b>	<b>-57.1</b>	<b>-29.8</b>	<b>-26.7</b>	<b>-4.2</b>	<b>8.6</b>
에너지	-0.5	-2.8	-4.1	-4.5	33.0	22.8	10.8	-100.0	-100.0	-100.0	100.0	9.1
소재	-2.8	-6.6	-14.3	-21.7	14.7	0.1	-12.7	-77.8	-33.3	-33.3	-23.1	11.0
산업재	-0.1	-5.3	-25.1	-22.5	7.9	-17.0	-14.6	-63.2	-31.6	-33.3	0.0	12.0
경기소비재	-0.1	0.3	-1.5	0.6	9.3	6.7	7.3	-30.8	-15.4	-27.3	-8.3	6.6
필수소비재	-0.6	-2.7	9.2	4.1	8.4	8.1	0.7	-60.0	-40.0	40.0	0.0	14.4
의료	-5.4	-3.0	-3.2	-8.5	30.5	26.9	7.1	-50.0	0.0	-50.0	50.0	21.3
금융	0.1	-1.9	-5.4	-12.8	-5.7	-8.8	-14.4	-70.0	-40.0	-30.0	-45.0	8.6
IT	0.3	2.0	11.1	21.8	30.3	32.2	38.0	-37.5	-25.0	0.0	37.5	8.2
통신서비스	0.0	-0.2	4.9	10.6	34.5	39.9	32.6	-66.7	0.0	0.0	0.0	9.3
유틸리티	-0.2	8.9	90.1	315.8	-200.0	-216.1	-264.0	50.0	50.0	-50.0	100.0	13.3

미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소재, 산업재, 에너지, 경기소비재, 금융 업종 상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b>전체</b>	<b>1.3</b>	<b>2.2</b>	<b>2.8</b>	<b>3.3</b>	<b>9.3</b>	<b>9.5</b>	<b>9.1</b>	<b>-5.4</b>	<b>-7.2</b>	<b>-11.2</b>	<b>-3.0</b>	<b>13.5</b>
에너지	1.8	1.4	2.8	4.0	4.7	5.1	7.5	-45.5	-45.5	-37.0	12.7	12.1
소재	3.2	2.7	4.8	3.2	21.9	22.1	15.6	-29.4	-26.5	-20.0	-20.0	13.1
산업재	1.9	3.2	4.3	1.8	10.8	10.8	7.6	-1.4	2.8	-25.3	5.4	13.9
경기소비재	1.6	2.3	3.5	6.3	10.8	10.9	12.6	-3.0	-3.0	1.0	-10.2	15.9
필수소비재	0.3	1.4	3.6	5.8	9.9	10.5	9.8	13.0	0.0	14.9	0.0	15.8
의료	0.6	0.9	1.7	2.9	1.2	6.4	6.8	11.7	-5.0	-6.9	-10.3	13.7
금융	1.4	2.6	4.1	7.6	17.7	15.3	14.7	12.6	1.9	-15.4	1.0	12.2
IT	1.4	3.3	1.2	-2.2	7.1	6.1	4.3	-6.0	-2.4	-2.4	-10.6	12.4
통신서비스	-0.3	0.0	1.9	8.6	25.9	19.5	21.7	-60.0	-10.0	-20.0	-45.5	17.9
유틸리티	0.0	-0.3	0.5	0.2	0.3	1.2	1.4	-23.5	-11.8	-15.2	21.2	15.2

중국 주요업종 실적전망 변화 (단위: %, 배)

에너지, 통신서비스 업종 하향조정	12개월 Forward EPS 변화율				2012년 EPS 변화율			Revision Ratio				PER
	1W	1M	3M	6M	1M	3M	6M	1W	1M	3M	6M	
<b>전체</b>	<b>-0.2</b>	<b>0.5</b>	<b>2.0</b>	<b>1.6</b>	<b>9.6</b>	<b>8.8</b>	<b>6.7</b>	<b>-8.9</b>	<b>0.0</b>	<b>-17.9</b>	<b>-44.8</b>	<b>9.9</b>
에너지	-0.5	-1.3	-1.3	-1.4	4.6	3.4	2.7	-100.0	-22.2	0.0	-66.7	9.6
소재	0.3	1.4	2.3	-5.7	38.9	33.3	7.3	-31.6	-10.5	20.0	-50.0	10.8
산업재	-0.2	0.5	1.2	-4.5	19.6	15.9	2.8	12.0	4.2	-35.7	-48.3	11.8
경기소비재	-0.2	0.6	1.7	-1.8	22.0	18.7	7.3	-17.6	-17.6	-15.8	-31.6	14.1
필수소비재	-0.1	-0.1	-1.7	-2.0	16.9	10.9	8.9	-63.6	-18.2	-18.2	-36.4	22.3
금융	-0.1	1.0	3.2	3.2	7.1	6.8	6.8	24.2	12.1	-18.8	-59.4	7.7
IT	-0.1	2.1	6.8	4.1	31.7	30.2	17.0	20.0	60.0	-40.0	-40.0	21.4
통신서비스	-0.4	-0.4	-0.2	2.8	3.3	3.1	5.4	0.0	0.0	-25.0	-75.0	11.5
유틸리티	0.4	2.2	7.1	12.6	20.5	22.8	23.3	37.5	37.5	-37.5	-25.0	13.2

자료: IBES(2013. 02. 27 기준),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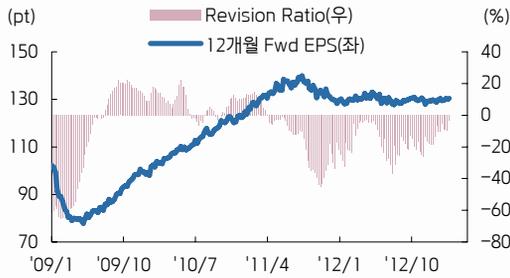
주: Revision Ratio, PER은 12개월 Forward EPS 기준

Revision Ratio = [(12개월 Forward EPS 상향조정 기업 수 - 하향조정 기업 수) / 총 기업 수]

중국 의료 업종은 Data가 없는 관계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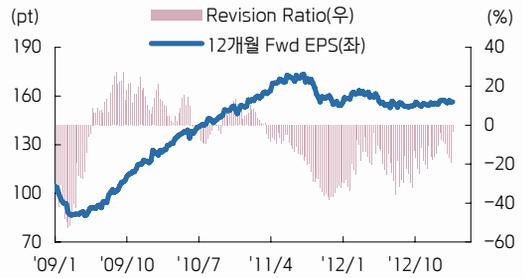
## >>> MSCI 주요 지역별 12M Fwd EPS & Revision Ratio 추이

### AC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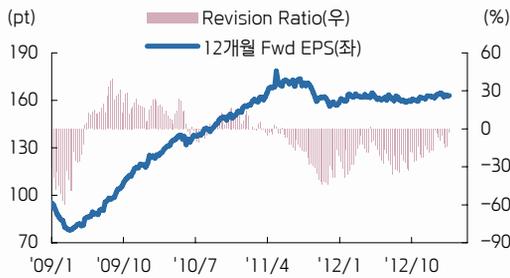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EMERGING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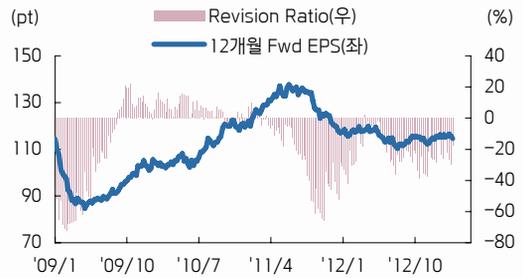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ASIA-PAC. EX 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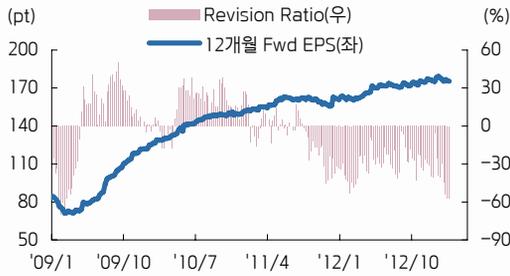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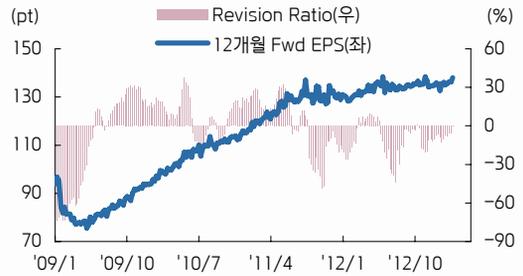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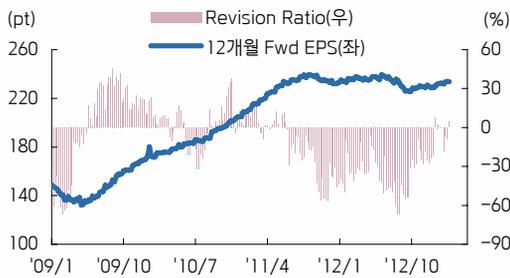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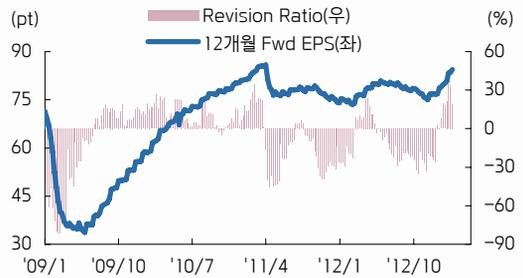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CHINA



자료: IBES,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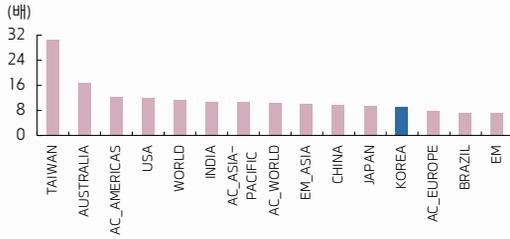
###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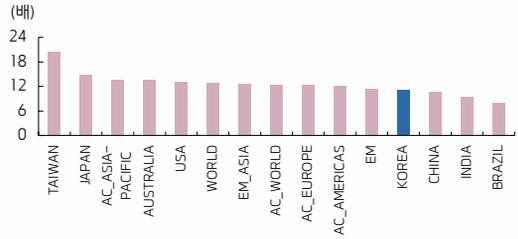
자료: IBES, 키움증권

##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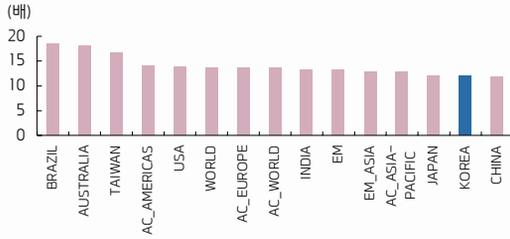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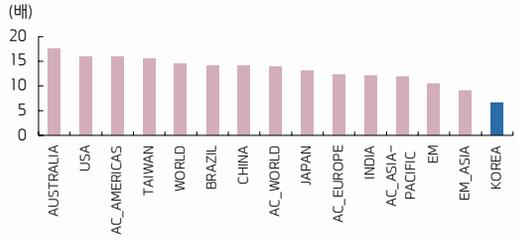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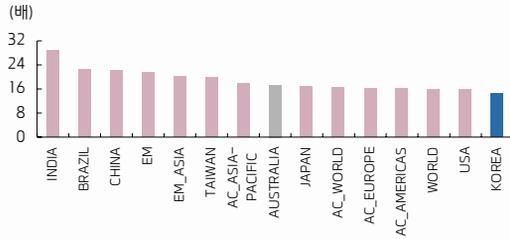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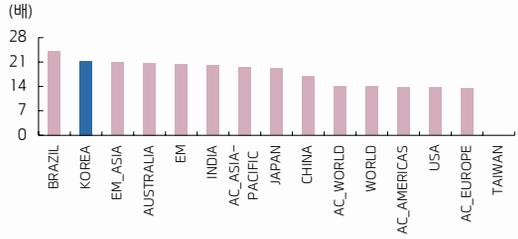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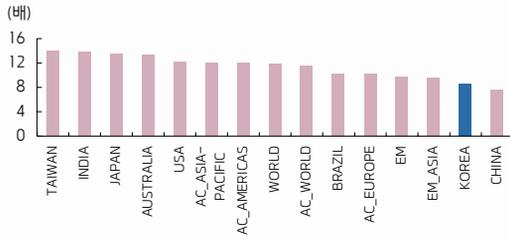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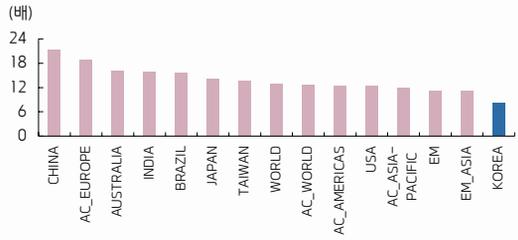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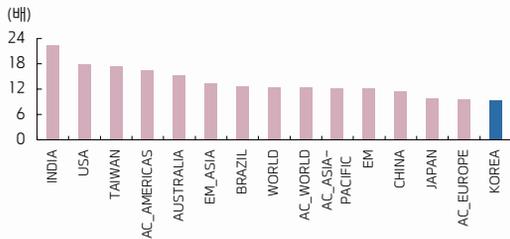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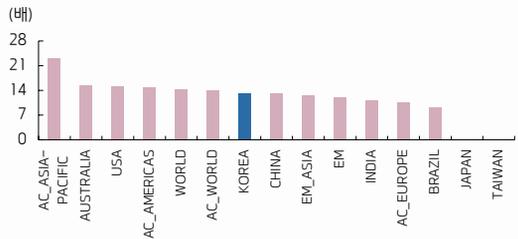
### IT



###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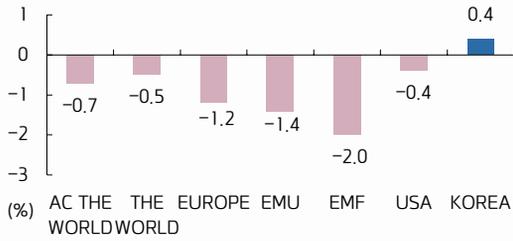
###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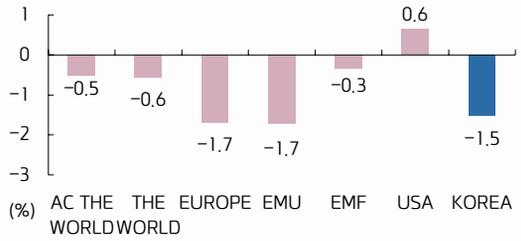
자료: IBES (2013. 02. 27 기준)  
 주 Taiwan 의료/유틸리티 업종 집계되지 않음

## >>> MSCI 주요 지역 업종별 지수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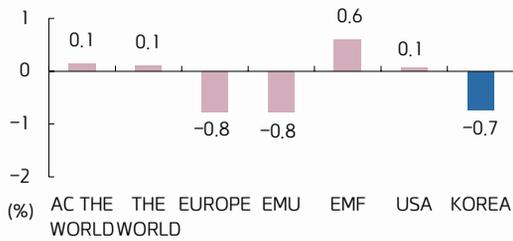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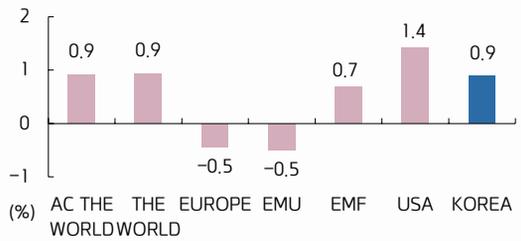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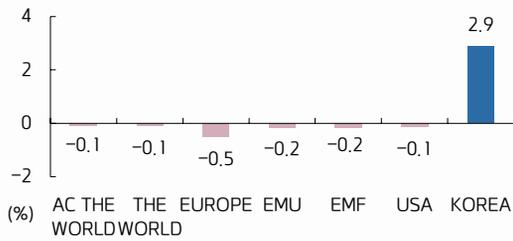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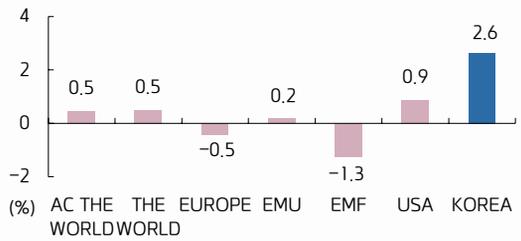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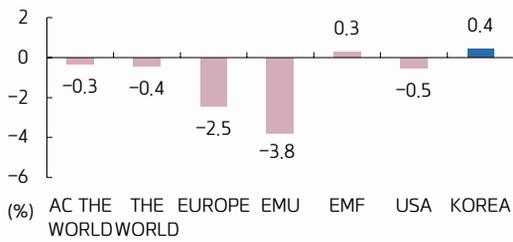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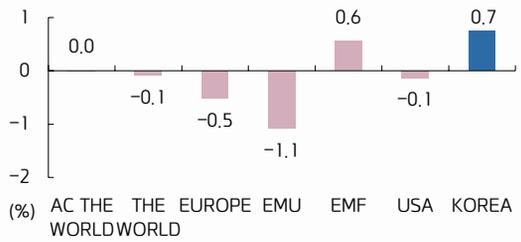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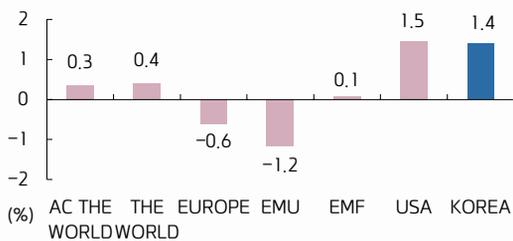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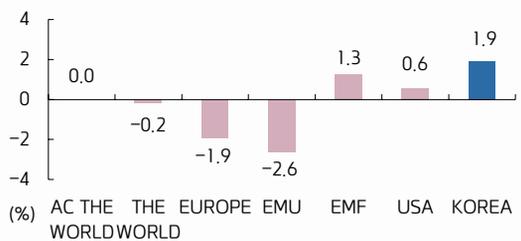
### IT



###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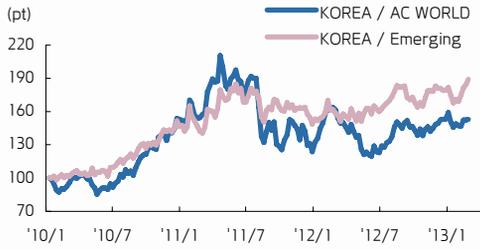


### 유틸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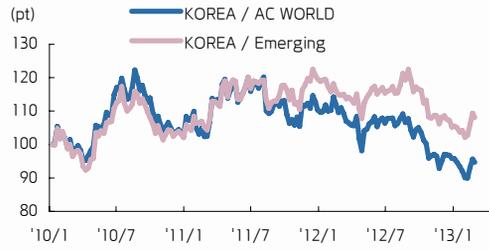


## >>> MSCI KOREA 주요 시장대비 상대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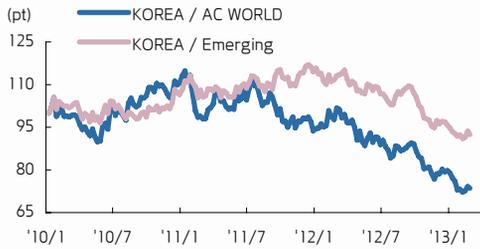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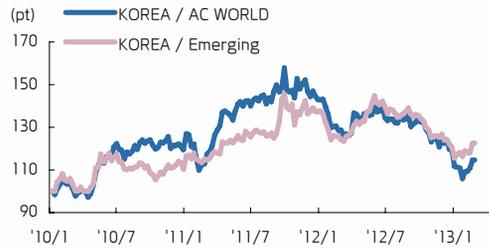
###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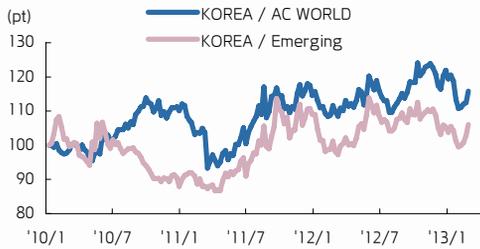
###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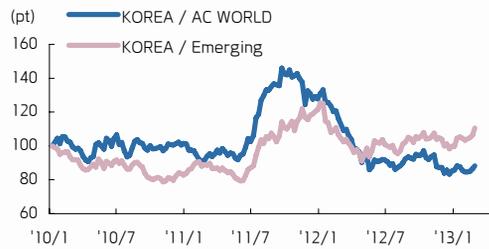
### 경기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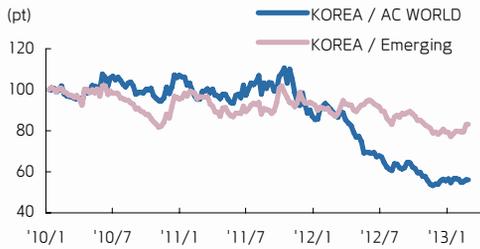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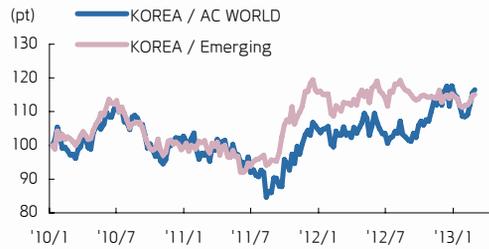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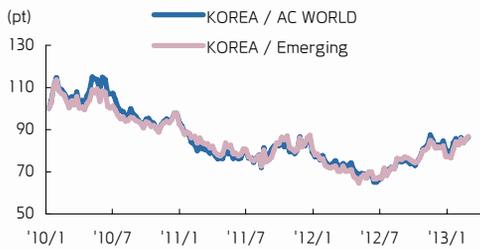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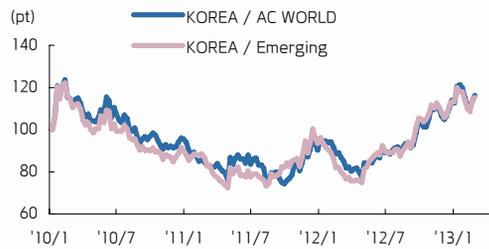
### IT



### 통신서비스



### 유틸리티



## >>> 해외 주요지수 · 종목 동향

주요국 지수	증가	D-1	D-5	D-20	주요 상품가격	증가	D-1	D-5	D-20
Dow	14,089.66	+0.25%	+0.64%	+1.65%	금(COMEX)	1,572.30	-0.37%	-0.01%	-5.32%
NASDAQ	3,169.74	+0.30%	+0.25%	+0.88%	천연가스(NYMEX)	3.46	-0.86%	+5.01%	+3.50%
S&P 500	1,518.20	+0.23%	+0.17%	+1.34%	알루미늄(LME,3M)	1,962.00	-2.14%	-4.99%	-6.21%
Semiconductor	425.09	-0.36%	+0.03%	+2.99%	전기동(LME,3M)	7,665.00	-2.42%	-2.34%	-6.41%
NYSE	8,874.19	+0.06%	-0.23%	-0.11%	아연(LME,3M)	2,019.00	-2.96%	-4.09%	-6.09%
NASDAQ 100	2,747.75	+0.33%	+0.38%	+0.59%	WTI(원유)	90.68	-1.49%	-2.25%	-6.99%
S&P 100	683.65	+0.16%	+0.00%	+1.30%	옥수수	724.25	+0.66%	+4.93%	-2.19%
S&P mid 400	1,098.15	-0.41%	-0.50%	+0.43%	셀링(NYBOT/ICE)	17.91	-2.56%	-1.81%	-4.63%
S&P small 600	512.40	+0.39%	-0.03%	+1.70%					
Russell 2000	914.73	+0.40%	-0.16%	+1.40%	<b>한국 DR 및 환율</b>				
영국	6,378.60	+0.28%	+0.68%	+0.49%	KB금융지주(ADR)	35.80	+1.04%	+0.85%	+1.36%
독일	7,708.16	-0.43%	+0.60%	-1.60%	신한지주(ADR)	38.90	+0.10%	+0.54%	+3.76%
프랑스	3,699.91	-0.62%	-0.17%	-1.95%	LG디스플레이(ADR)	13.86	-0.29%	-1.70%	+3.74%
일본	11,606.38	+0.41%	+1.94%	+4.20%	POSCO(ADR)	80.36	-0.41%	-2.98%	-1.35%
대만	7,964.63	+0.84%	-0.28%	+2.85%	SK텔레콤(ADR)	18.06	-0.61%	+2.38%	+6.55%
홍콩항셍	22,880.22	-0.61%	+0.43%	-3.28%	한국전력(ADR)	14.94	-0.13%	+1.43%	-0.47%
홍콩 H	11,344.24	-0.81%	+0.24%	-6.07%	KTI(ADR)	16.26	+0.49%	+0.62%	-4.01%
상하이종합	2,359.51	-0.26%	+1.96%	+2.98%	우리금융지주(ADR)	36.31	+0.51%	+3.32%	+2.65%
상하이A	2,469.53	-0.26%	+1.95%	+2.97%	삼성전자(GDR)	699.00	-1.55%	-0.64%	+5.27%
선전A	1,019.33	+1.14%	+3.12%	+7.53%	삼성전자 우 (GDR)	401.00	-0.37%	-2.62%	+2.43%
태국	1,539.60	-0.13%	+0.71%	+4.44%	현대차 우 (GDR)	32.83	-1.41%	+1.02%	+2.92%
싱가폴	3,269.50	-0.01%	-0.57%	-0.50%	LG전자(GDR)	9.20	0.00%	+1.15%	-2.65%
인도네시아	4,811.61	+0.33%	+3.45%	+7.36%	롯데쇼핑(GDR)	17.65	-0.84%	-0.68%	+4.75%
러시아	1,509.80	-1.60%	-2.66%	-7.28%	STX팬오션(SGD)	5.80	+5.45%	+3.57%	-7.64%
인도	18,918.52	+0.30%	-2.06%	-4.36%	원/달러	1,083.00	-0.13%	-0.30%	-0.51%
멕시코	43,995.72	-0.28%	+0.27%	-2.83%	엔/달러	93.59	+1.11%	+0.18%	+0.88%
브라질	56,883.99	-0.94%	+0.33%	-4.13%	달러/유로	1.3022	-0.27%	-1.30%	-4.53%
한국	2,026.49	+1.12%	+0.56%	+3.16%	위안화/달러	6.2230	+0.02%	-0.25%	-0.07%

### 다우지수 구성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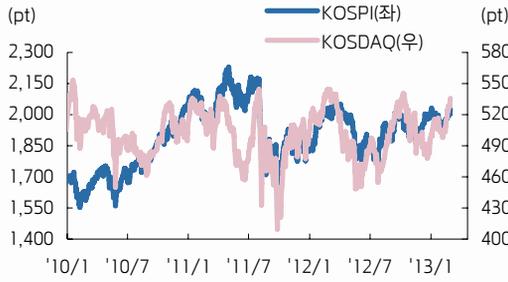
3M	103.77	-0.22%	+0.22%	+3.20%
Alcoa	8.44	-0.94%	-2.31%	-4.52%
Altria Group	33.55	-0.18%	-5.18%	-0.56%
American Express	62.37	+0.35%	-0.32%	+6.05%
AIG	38.01	-0.42%	-1.56%	+0.05%
AT&T	36.01	+0.28%	+0.92%	+3.51%
Boeing	77.28	+0.49%	+0.81%	+4.62%
Caterpillar	91.36	-1.09%	-0.20%	-7.15%
Citigroup	42.11	+0.33%	-1.59%	-0.12%
Coca Cola	38.70	-0.05%	+0.47%	+3.92%
Du Pont	48.09	+0.40%	+1.80%	+1.35%
Exxon Mobil	89.43	-0.13%	+0.26%	-0.60%
General Electric	23.19	-0.13%	-0.86%	+4.08%
General Motors	27.21	+0.22%	+0.37%	-3.13%
Hewlett Packard	20.15	+0.05%	+4.95%	+22.05%
Home Depot	69.03	+0.77%	+5.26%	+3.15%
Honeywell	37.85	-0.42%	-1.56%	+0.05%
IBM	202.91	+1.04%	+0.91%	-0.08%
Intel	21.02	+0.82%	+2.94%	-0.10%
J&J	76.70	+0.78%	+0.59%	+3.76%
JPMorgan	48.91	-0.02%	0.00%	+3.95%
McDonald's	95.68	-0.23%	+0.45%	+0.41%
Merck	42.63	-0.23%	-0.79%	-1.43%
Microsoft	27.95	+0.54%	+0.68%	+1.75%
Pfizer	27.39	+0.07%	+0.04%	+0.40%
P&G	76.49	+0.41%	-0.65%	+1.77%
United Tech	90.13	-0.46%	-0.40%	+2.92%
Verizon	46.72	+0.41%	+2.91%	+7.13%
Wal Mart	71.74	+1.36%	+1.90%	+2.56%
Walt Disney	55.33	+1.36%	+1.99%	+2.69%

### 필라델피아반도체 구성종목 및 주요 기술주

AMD	2.42	-2.81%	-7.28%	-6.92%
Altera	35.51	+0.25%	+0.45%	+6.25%
Applied Materials	13.59	-0.80%	+0.15%	+5.27%
Broadcom	33.87	-0.70%	-1.91%	+4.38%
Cree	45.42	+0.42%	+1.50%	+5.26%
Intel	21.02	+0.82%	+2.94%	-0.10%
KLA-Tencor	54.50	-0.47%	-0.51%	-0.75%
LAM research	42.68	+0.90%	+1.55%	+3.74%
Linear Tech	37.91	-0.86%	+0.01%	+3.52%
Marvell Tech	10.27	+1.68%	+3.84%	+11.03%
MEMC	4.81	-2.83%	-4.37%	+15.63%
Micron Tech	8.25	-1.49%	+2.87%	+9.13%
National Semi	24.74	+0.20%	-0.12%	+0.57%
Novellus System	40.39	-0.47%	-6.16%	-10.44%
Sandisk	50.29	-0.24%	+1.66%	+0.60%
Stmicroelectron	7.87	-1.01%	-1.87%	-8.81%
Taiwan Semi	18.25	0.00%	-3.44%	+2.87%
Teradyne	16.62	-0.84%	-1.60%	+2.85%
Texas Instrument	29.11	-0.78%	-1.32%	-3.64%
Xilinx	36.65	-1.66%	-3.45%	+0.44%
Apple	430.47	-2.48%	-4.51%	-5.49%
Ebay	54.90	+0.35%	-0.22%	-1.91%
Cisco	20.83	-0.12%	-0.33%	+1.26%
Dell	14.00	+0.36%	+0.57%	+5.74%
Research In Motion	13.26	-0.75%	+0.61%	+2.16%
Google	806.19	+0.62%	+0.81%	+6.68%
Nokia	3.59	-1.64%	-5.03%	-8.42%
Oracle	34.63	+1.14%	-0.35%	-2.48%
Qualcomm	66.30	+1.01%	+2.09%	+0.42%
Yahoo	21.94	+2.98%	+3.39%	+1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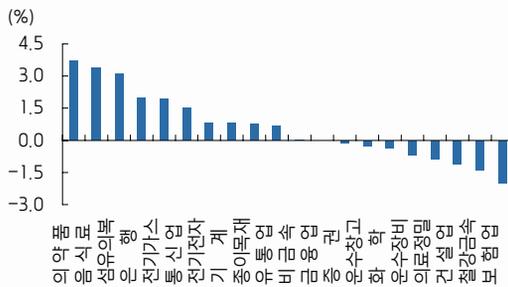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한국 휴장으로 2월 28일 종가 기준

### KOSPI vs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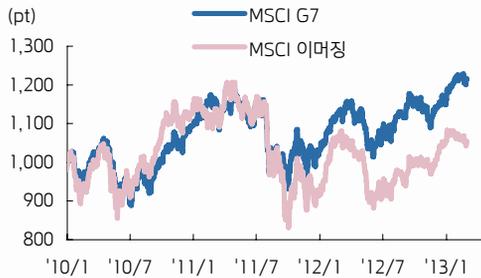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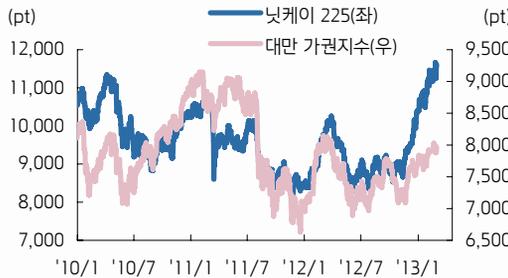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MSCI G7 vs MSCI 이머징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닛케이 225 vs 대만 가권지수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간 기관 vs 외국인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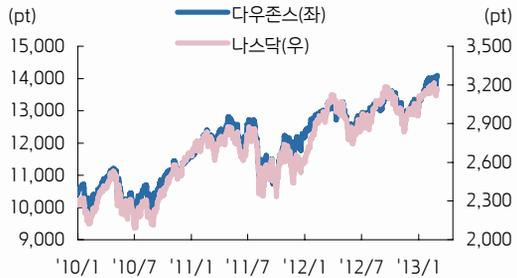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매수차익잔고 vs 매도차익잔고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키움증권

### 다우존스 vs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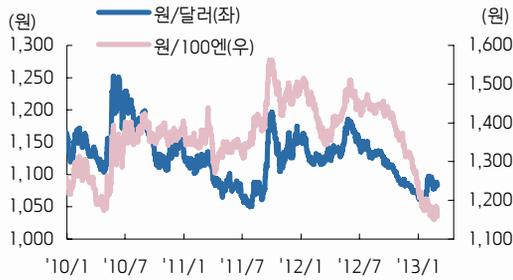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상하이 A vs 뭘바이 SENSEX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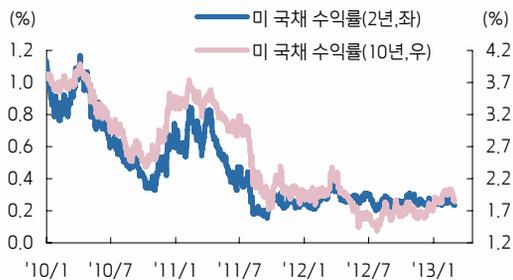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원/달러 vs 원/100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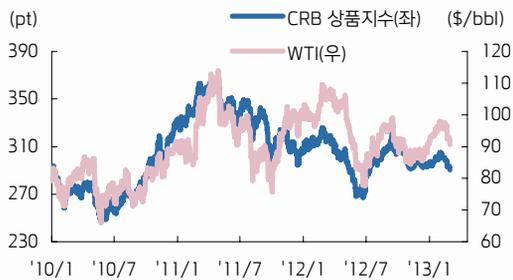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 미 국채 수익률 2년 vs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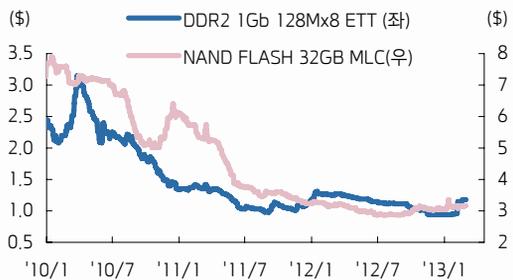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 CRB 상품지수 vs WTI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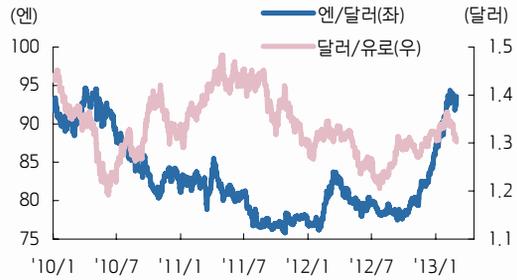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DRAM2 1GB vs NAND FLASH 32GB MLC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엔/달러 vs 달러/유로



자료: CEIC, 키움증권

### 국고채 수익률 3년 및 회사채 AA- 수익률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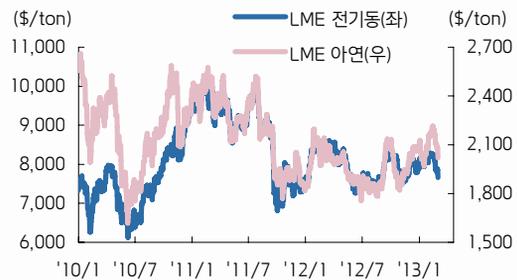
자료: CEIC, 키움증권

### 국제 금가격 vs 달러 인덱스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

### LME 전기동 3M vs LME 아연 3M



자료: Datastream, 키움증권